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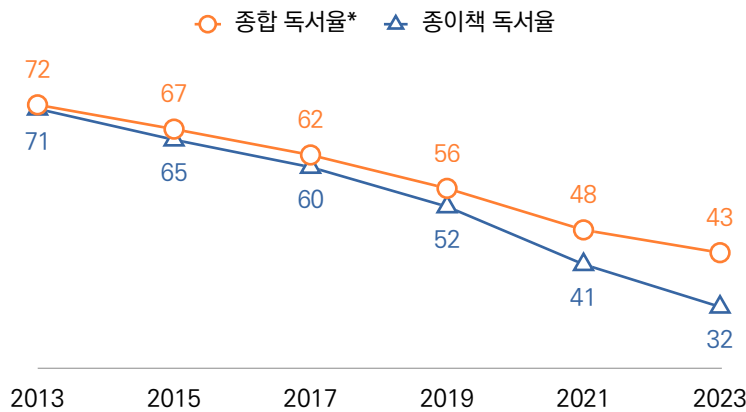


[한국인의 독서 실태]

성인 3명 중 2명, 1년에 종이책 1권도 안 읽어!

- 매년 4월 23일은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한 '세계 책의 날'이다. 때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'2023년 국민 독서실태'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본다.
- 지난 10년간의 한국인의 독서율 추이를 살펴보면 '연간 종합 독서율(종이책+전자책+오디오북)'은 성인 기준 2013년 72%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21년 48%로 절반 아래로 급감했고, 2023년은 43%까지 떨어졌다. 종이책 기준으로 보면 2023년 32%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만이 1년에 종이책 1권 이상을 읽고 나머지 2명은 1권도 안 읽은 셈이다.

[그림] 연간 독서율 추이 (만 19세 이상 성인, %)


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.8%, 성인 43.0%'(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, 2024.4.18. 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 면접/방문 자기기입식 조사, 2023.10.04.~11.10.)

*연간 종합 독서율 : 지난 1년간 일반도서(교과서, 학습참고서, 수험서, 잡지, 만화 제외)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(종이책, 전자책, 오디오북 포함) 사람의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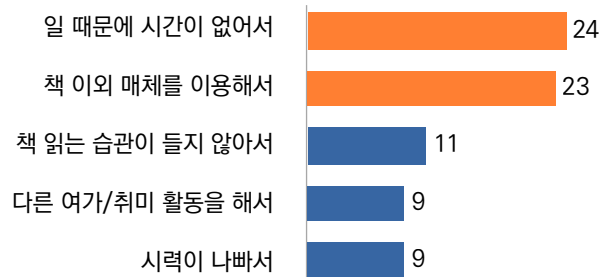
성인의 평균 독서 시간, 휴일에도 30분이 채 안돼!

- 성인의 하루 평균 독서시간(종이책+전자책+오디오북)은 평일 19분, 휴일 25분으로 휴일에도 30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평일과 휴일 간 큰 차이가 없었다. 그렇다면 독서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? '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'(24%)와 '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'(23%)를 가장 많이 꼽았고, 그다음으로 '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', '다른 여가/취미 활동'을 해서, '시력이 나빠서' 순의 이유를 들었다.

[그림] 하루 평균 독서 시간 (성인)



[그림] 독서 방해 요인 (성인, 상위 5위, %)



※출처 :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'23년 연간 종합독서율 학생 95.8%, 성인 43.0%'(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, 2024.4.18. (만 19세 이상 성인 5,000명 면접/방문 자기기입식 조사, 2023.10.04.~11.10.)